

## '가타세에노시마역 신역사 완성에 대해서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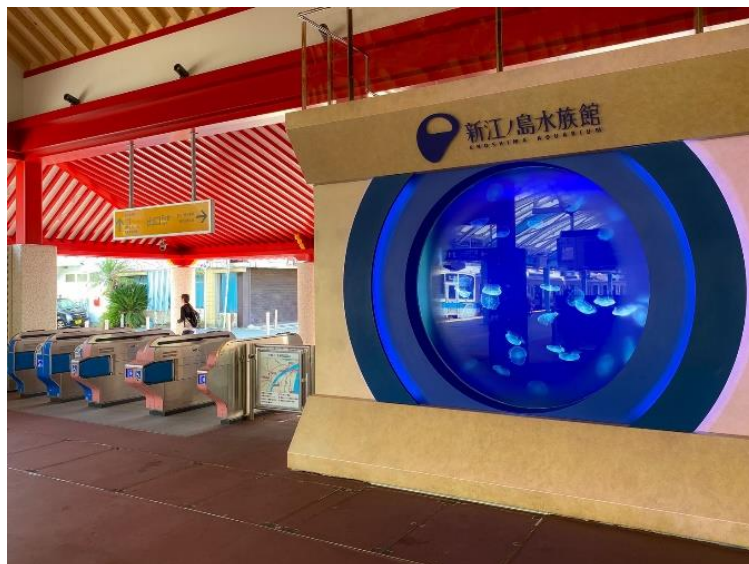
오다큐 연선의 인기 관광지 에노시마의 현관문 가타세에노시마역의 새로운 역사가 2020년 7월 완성되었습니다.

해신이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일본의 옛날 이야기 속 '용궁성'을 본떠 만들어진 가타세에노시마역의 역사는 1929년부터 약 90년간 이 지역 사람들과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. 이번에 완성된 새로운 역사도 '용궁성'을 본떠 만들었습니다. 그렇지만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되어 이곳을 찾은 사람들을 더욱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.



### 1. '해파리 수조' 설치

수족관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대형 '해파리 수조'가 역 안에 설치되었습니다. 수조 안에 많은 해파리들이 떠다니고 있어서 역에 들어오시면 마치 바닷속에 있는 듯한 신기한 기분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.



## 2. 지붕과 천장의 장식

역사 지붕에는 용, 거북이, 돌고래 등의 조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개표구 안에 있는 천장에 약 15m에 걸친 용의 조각이 설치되어 있는 등, 다양한 생물들의 모습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



## 3. 조명으로 밝혀지는 역사

해가 지면 역사에 조명이 밝혀지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 
그리고 불꽃놀이나 크리스마스 등의 이벤트가 열릴 때는 특별한 조명으로 장식됩니다.



에노시마·가마쿠라 지역을 방문하실 때는 도쿄의 신역사에서 오다큐선을 타고 약 70 분 거리에 있는 가타세에노시마역을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